

컨설턴트란 어떤 자인가?

- 미국 양돈농가가 보는 컨설턴트 -

- 정 P&C 연구소 -

<미네소타에서 모돈 300두 규모의 일관생산 양돈을 하는 리치 쉐크(Rich Schiek)씨의 컨설턴트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후 소감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컨설턴트가 왜 필요하였나?

컨설턴트란 어떤 사람인가? 그럴듯한 타이틀을 가지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또는 자신이 그렇다고 믿고 있는 사람). 세일즈맨 등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나는 농장 질병문제 때문에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결국은 누군가 도와줄 사람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나의 농장주위는 대가축 전문수의사만 있었고 내 농장을 봐주는 수의사는 최선을 다 하여 도와 주었으나 내농장 질병문제를 결국 해결할 수 없었다. 그의 권고로 양돈장의 돼지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수의사 컨설턴트를 맞이하게 되었다.

2. 컨설턴트의 조치

나와 새 수의사는 만나질 동안 농장 구석 구석을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가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게 그는 꼼꼼히 살폈다. 농장관리 업무가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었고 잘못하는 것도 있었다. 나의 농장의 산자수는 대단히 양호하였다. 자돈들의 건강상태도 비교적 양호하고 비육돈도 등급과 정육률도 대단히 우수하다.

내 농장의 문제점은 위축성 비염(AR)이었다. 일부 자돈을 판매할 때 이 문제 때문에 제대로 값을 못받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항상 모든 돼지는 아니지만 코가 삐뚤어진 돼지가 가끔 보이는 것도 문제였다. 모든 사항을 파악한 후 1주일일 채 못되어 백신, 도태 등의 AR처리방안이 수립되었고 곧바로 시행되었다. 물론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 뒤로는 AR문제가 전혀 발

생하지 않고 있다.

3. 제3자로서의 컨설턴트 필요성

많은 양돈농가는 내가 겪은 돼지의 증상과 문제를 별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그대로 지나치기 쉽다. 또는 조금만 주의하여 관리하면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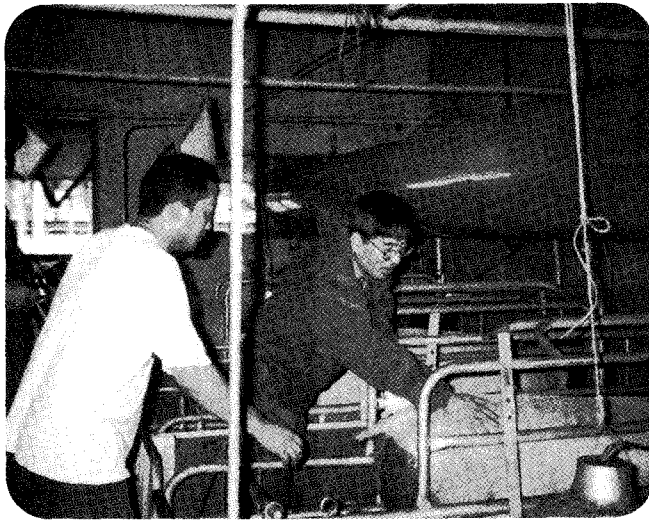
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설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치고 있는 것이다. 새 수의사는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좀더 세부적인 것을 상의하고 협의한다. 양돈농가는, 특히 규모가

작은 농가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하여야하기 때문에 초기에 발생하는 작은 문제가 마침내 농장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문제로 확대될 때까지 간과하기 쉽다.

요즘처럼 격변하는 농장 내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나의 농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제3자의 눈이 꼭 필요하다. 컨설턴트는 그러한 제3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4. 농장주인이 컨설팅 비용을 지불한다

컨설턴트가 나의 농장을 방문하게 하고 농장안을 살피게 하는 것은 나의은행 구좌에 있는 돈이다. 농장의 주인은 나이 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농장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



도 나의 책임이므로 필요한 것은 꼭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컨설팅 내용에 따라 농장이익을 올리는 것도 나의 책임이다. 과거와는 달리 양돈산업의 변화는 신속하다. 특히 소규모 양돈농가는 스스로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모두 감지하고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이용하는 아웃소싱이 필요한 것이다.

즉, 사료영양 컨설턴트, 방역

컨설턴트, 시설전문 컨설턴트, 생산관리 컨설턴트, 종돈전문 컨설턴트 등이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다.

5. 어떤 컨설턴트를 선택할 것인가?

따라서 문제는 컨설팅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고 “농장의 수익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이다. 컨설턴트를 선택할 때는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상대하기에 편한 사람이어야 한다. 컨설턴트의 선택은 우선 각 농장이 추구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파악한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일은 컨설턴트 비용을 지불할 사람은 당신 자신이고 효과를 보는 것도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제3자와 농장 경영업무를 협의하고 자문을 받는다는 것, 완전한 제3자로부터의 객관적인 파악을 받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미네소타 양돈생산자 워크샵에서의 주제발표 내용, 1997년)